

민주와 진보의 역사, 민변이 함께 했습니다. 발자취



1988년 5월,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의 결합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탄생하였다. 출범하자마자 시국사건 변론 요청이 폭주하였고,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론하면서 동시에 법률전문가로서의 특성을 살려 권위주의시대의 악법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제도개혁을 위한 대외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1997년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인한 상황변화와 역할 다양화의 요구에 따라 민변은 인권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그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익소송의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매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아우름으로써 '인권'이 일상적 주류 담론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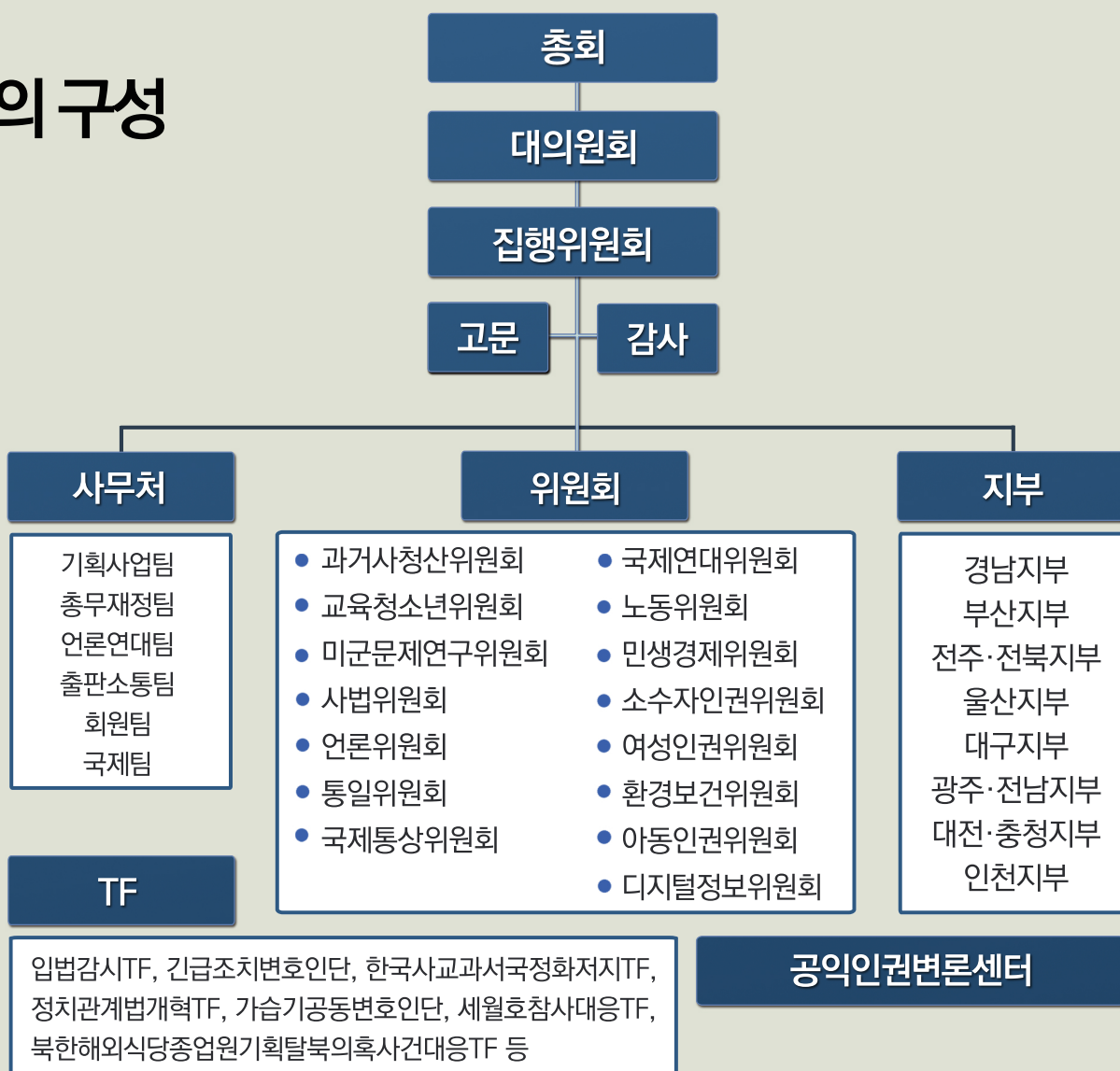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혁입법, 과거청산, 사법개혁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민변은 진보적 전문가단체로서 구체적 대안을 개발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동시에 한미 FTA와 최고기 수입 졸속협상, 비정규직법 제정,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사건의 고소·고발을 주도하는 등 민변의 목소리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민변 창립 20년을 지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근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늘날 민변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인권옹호와 인권침해 감시, 입법청원과 제안, 사법감시와 공익소송,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소수자보호와 국제연대 등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민변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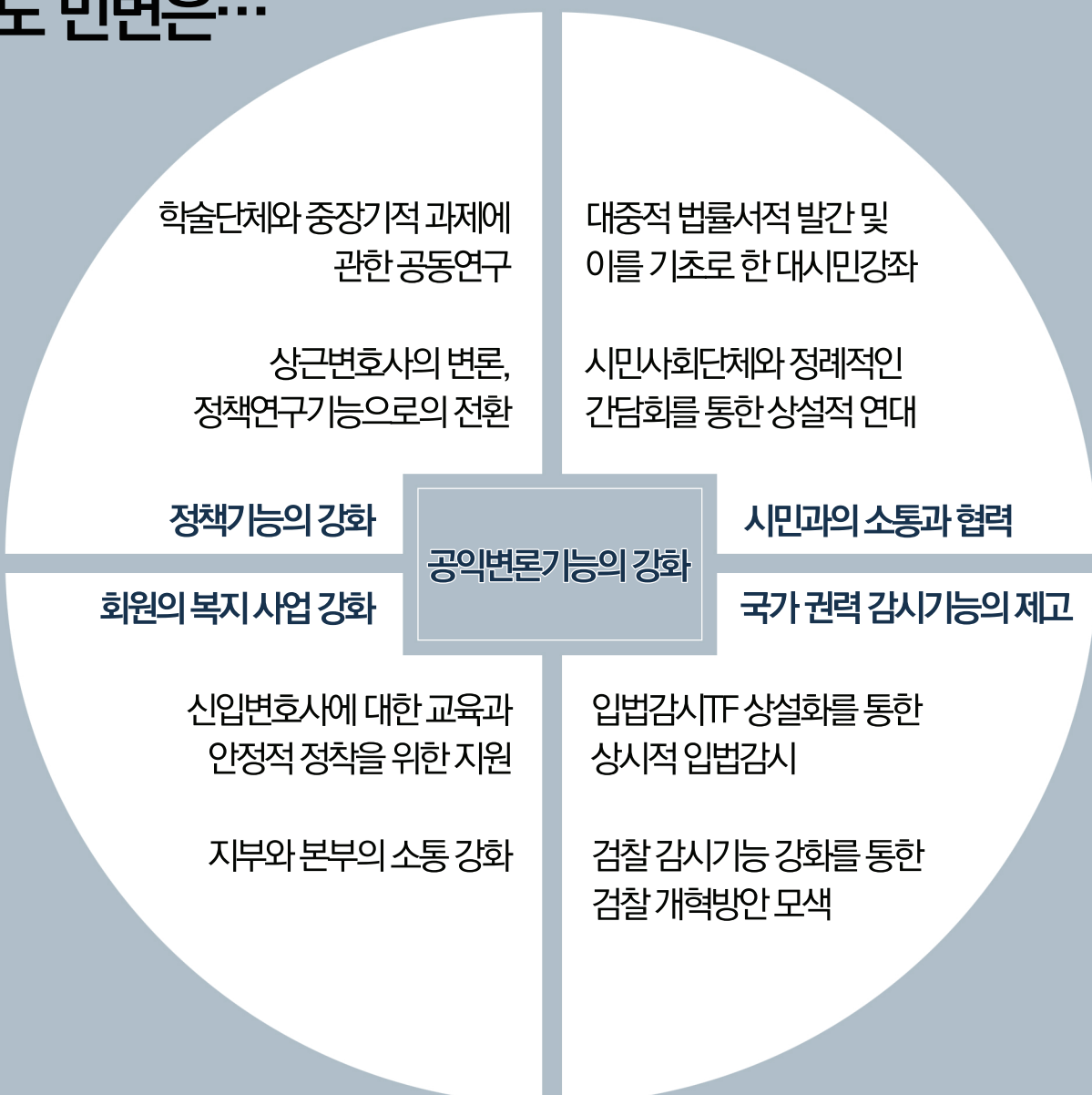
History

궁금해? 민변의 구성



Composition

민변에서는 어떤 일이? 오늘도 민변은...



Now